

André MERNIER

주니코시아 벨기에 대사, 북대서양 조약기구 상주대표, 주워싱턴 벨기에 대사, 주베를린 벨기에 대사, 주한 벨기에 대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벨기에 외무부의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언어 사회로서의 벨기에

- 제도적 측면에서 본 문제의 기원과 현 상황

앙드레 메르니에

이 모임이 훌륭한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공동작업이 공고해지고 더 나아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이 불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 축하를 보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불어는 확실히 세계적인 사명을 띤 위대한 언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훌륭한 문화적 유산을 물려 받은 언어입니다. 불어는 서양문명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저는 벨기에가 이 업적을 쌓는데 중요한 일익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브뤼셀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뤼셀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공동체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 벨기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유럽이 복잡한 인종, 특히 복잡한 언어 속에 있다는 현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벨기에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천만이고 1830

년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죠.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라틴 문화와 게르만 문화라는 두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450만이 불어를, 550만이 네덜란드어를, 그리고 대략 7천명 정도가 독일어를 씁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도적인 해결방법이 복잡하다는 사실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리만은 아닙니다. 두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감정과 문화적 유산을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같은 영토에서 살아야 할 때,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불어의 경우와 라틴문화, 게르만문화의 경우에 해당하는 두 세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벨기에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룩셈부르크 역시 같은 경우에 속하죠. 국민들은 똑같이 게르만적인 감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불어를 사용합니다. 게르만 사투리가 쓰이는 지역에서도 불어가 사용되니까요. 알사스 문제는 약 12년 동안 지속된 게르만-프랑스어의 문제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맞부딪치게 되었던 경우였죠. 남부 티롤지방 문제도 같은 경우였는데, 라틴, 즉 이탈리아문화와 게르만문화가 충돌한 것이었죠. 이 문제들은 어느 경우에도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이중문화를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죠. 알사스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알사스의 게르만지역은 라틴지역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매우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가문의 문제이기에 이러한 현실은 쉽게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위의 사실들은 라틴-게르만의 공존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이집트의 콥트파 사람들과 레바논의 소수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어를 사용하지만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벨기에에 있어 중대한 난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시도했던 해결책들은 특별한 것이었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공존은 많은 어려움의 요인이 되었습니다만 동시에 많은 부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유지된 동질적인 문화는 끝에 가서는 창조성을 자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럽의 예술적, 기술적, 음악적인 비범한 창의력은 근본적으로 여러 세기에 걸친 다양한 감성들의 교류에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침략들이 그것인데, 우선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될 로마의 침략, 그리고 로마제국 말기의 게르만의 침략, 몽고-터어키의 공유지역, 남유럽으로의 아라비아어의 전파 등, 이 모든 것들은 기존의 관념들을 새로운 관념과 충돌시키면서 창의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벨기에의 경우, 역사적인 유산들과 미술, 문학은 이러한 창의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기에에 들어가 전파된 것은 어디로부터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불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력(西曆)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 1세기 때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통치는 5, 6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그후 로마제국은 벨기에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쇠퇴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쇠퇴와 함께 언어도 점점 상스럽게 되었고 원래의 라틴어는 '속어 라틴어'라고 불리워지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 '속어 라틴어'는 그후에 새로운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영향은 미개인들, 즉 프랑크족과 게르만족이 침입하면서 가져온 방언에 의해서입니다.

라틴어와의 결정적인 단절은 9세기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두 개의 문헌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 첫번째 문헌은 스트라스부르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그것을 계획한 사람의 후손들간의 협약이며, 우리가 그 시대에 이미 독일인, 프랑인이라 부를 수 있다면,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의 군사적 협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서약은 불어와 독일어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헌은 823¹⁾년이나 그 전후에 작성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두번째 문헌인 『백합 성녀의 칸타타 *La Cantata de Sainte de la Lys*』는 원래 벨기에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들의 삶을 묘사한 지리이야기입니다. 23행만 남아 있는 이 칸타타는 새로운 언어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언어는 이상하게도 구어로는 사용되지만 문어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럽 사람들은 그 시기에 거의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수도사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모든 것을 손으로 썼기에 글의 전파는 매우 더뎠습니다. 단지 수도사 집단만이 기독교적인 틀 내에서 글로 쓰여진 모든 유산들을 보존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리스-로마유산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유산을 전수해 줄 문헌들을 옮겨 적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몇몇 문헌들을 우리가 물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유산은 후에 동로마제국에 의해 보존되었고 다시 아랍인들에 의해 전수되어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부흥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속어'는 널리 퍼져 나가는 했지만 글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1450년대에 인쇄술의 발명에 의해서입니다. 인쇄술의 발명은 글을 획기적으로 보급시킵니다. 이러한 보급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수도원 밖의 민중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라틴어와 속어로 동시에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체계화되는 것은 바로 이 때입니다. 이 언어가 실질적인 발전을 거쳐 불어가 되기에 불어는 구어로 존재합니다.

왜 벨기에에선 불어가 쓰이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벨기에의 알론 지역과 브뤼셀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화없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베 Bavay²⁾에서 켈른 Cologne으로 가는 큰 길이 나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방벽을 쌓아 로마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벽들이 현재 벨기에의

1) <스트라스부르 서약>이 맺어진 정확한 연도는 842년이다.

2) 프랑스의 북쪽, 벨기에와의 국경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

로마지역과 게르만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경계를 만들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경계를 세웠고 현재까지도 그 경계는 유효합니다. 그들은 미개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그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프랑크족이 침입했죠(저는 여기서 벨기에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족이 우선 벨기에에 정착합니다. 라인프랑크인들 francs ripuaires과 살라프랑크인들 francs saliens이 벨기에와 리에주 공국에 정착하죠. 리에주공국은 후에 공국이 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공국이 아니었습니다. 리에주로부터 그들은 투르네 Tournai로, 투르네로부터 파리로 이동하게 되고 마침내 벨기에 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게 되죠. 파리에 있는 프랑스왕은 힘이 점점 더 강력하게 되고 그 당시 프랑시앵어라 불리워지던 방언을 보급합니다. 벨기에에는 계속 메로빙왕가에 속하였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했고 때문에 그 언어를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라틴어의 쇠퇴로 불어권 세계는 커다란 두 개의 언어, 즉 오크어와 오일어로 나뉘게 됩니다. 오크어는 남부프랑스에서 쓰이게 됩니다. 왜 오크어라고 했을까요? 프랑스 남부에선 ‘예’라는 말을 ‘오크 oc’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일어는? 프랑스 북쪽지방에선 같은 경우 ‘오일 oil’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현재 제 고향인 아르덴지방에선 시골사람들이 방언으로 ‘예’를 ‘오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방언을 쓰지 않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언어를 완벽하게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언은 가르쳐지지도 않거니와 글로 쓰여지지도 않고 말을 하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벨기에에는 완전히 프랑시앵어를 쓰게 되고 오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벨기에나 프랑스에 대해 말할 때 이 모든 현상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90%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동하지 않는 농부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한 언어를 말하고 있었고 고

장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처럼 걸어서 다닙니다. 이들은 이웃과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만 최소한의 말을 하는데 그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라신느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그가 그 위대한 세기, 즉 17세기에 한 지방엘 갔는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파리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프랑시앵어, 불어를 말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벨기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그러므로 피카르디 사투리, 로렌 사투리, 왈론 사투리는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르긴 해도 프랑시앵어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퀘벡에 대한 훌륭한 도서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을 통해 퀘벡의 지역특성이 보존되는 것이죠.

불어가 될 라틴어와 네덜란드어가 될 저지(低地)독어인 플랑드르어 사이에 언어적인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언어적인 정착은 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며 아마 천 년이 지나도 더이상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이것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기를 거치면서 벨기에의 게르만지역과 라틴지역 사이에는 어떤 이해집단, 정치적인 집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유럽정치의 모든 운동과 모든 갑작스런 움직임을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경우마다 프랑스쪽이든지 아니면 독일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프랑스왕이나 혹은 독일제국 황제와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해야 했던거죠. 그러나 언어적인 면에서는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화를 가져 온 것은 놀랍게도 프랑스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혁명은 왕조를 전복시키면서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죠. 그때까진 항상 왕들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정통성은 왕들의 정통왕위계승에 의해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새로운 정통왕위계승을 위해 결혼과 동맹,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국민은 왕에 복종합니다. 왕이 합스부르크왕조의 왕이면 국민은 합스부르크왕조의 운명에 복종합

니다. 왕의 죽음과 유산상속, 새로운 동맹에 의해 왕이 프랑스쪽이나 에스파니아쪽에 붙는다면 국민들도 거기에 따릅니다. 그러나 언어적으로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프랑스혁명으로 변화한 것은 프랑스에서 갑자기 왕이라는 신분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경우에 맞는 원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전유럽에서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진보의 결과였죠. 또한 프랑스혁명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끔 해 주었고 의무교육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군대창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왕이 모든 전쟁에서 일반 국민들과 상관없는 아주 적은 인원의 군대, 즉 개인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은 대군대를 창설하게 하고 모든 경우 국민 전체가 군대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갑자기 한데 섞이고 군대를 따라 이태리로, 프랑스로, 독일로, 러시아로, 에스파니아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굉장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는 프랑스의 모든 지방과 그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모든 지방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통된 하나의 언어를 만들 필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해해야 하니까요. 모두가 불어를 말해야 했습니다. 혁명은 불어를 알아야 하는 애국적인 원칙을 세웠습니다. 프랑스혁명으로 인해 불어를 아는 것은 공화국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인식되었습니다.

벨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혁명과 제국전쟁 후에 불어는 프랑스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전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평민층은 불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파리에서 이루어지고 불어를 보급하기 위해 지롱드당원들과 로렌 사람들 모두가 불어를 말해야 했습니다. 1815-20년대의 언어적 측면에서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불어를 재인식해야 했고 그 필요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벨기에와 모든 유럽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유럽에서 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등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

문이죠. 또한 18세기에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였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인구통계는 프랑스군대가 성공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프로시아는 인구가 5백만이었지만 프랑스의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반이 프랑스였던 것입니다. 이 인구통계적인 현상은 당시 프랑스와 프랑스군대가 펼친 영예를 잘 보여줍니다. 프랑스군대는 전유럽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것은 프랑스군대가 다른 어느 나라의 군대들, 즉 프로시아, 네덜란드, 당시 벨기에의 군대에 비해 월등하게 수가 많았기 때문이죠.

한 예를 들어봅시다. 1830년에 벨기에의 인구는 3백만이었습니다. 현재 벨기에 인구가 천 만이니까 대략 3.5배 증가한 것이죠. 반면 프랑스의 인구는 나폴레옹전쟁에 의해 실질적으로 그 증가를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죠. 그 이후 프랑스는 인구가 두 배 증가했는데 이것은 다른 유럽나라들에 비하면 적은 양입니다. 그러므로 인구통계학상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선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전쟁들로 인해 불어를 사용합니다. 도처에서 불어가 사용되는데 발론과 브뤼셀뿐 아니라 플랑드르에서도 불어가 사용됩니다. 벨기에의 플랑드르지역에선 귀족, 영주, 그리고 읽고 쓸줄 아는 사람들은 다 같이 불어를 말합니다. 이 지역은 나머지 유럽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러시아, 프로시아, 이태리, 스페인에서도 불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어는 부르조아의 언어이고 지식인의 언어이며 교양있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여기에 플랑드르가 예외일 수는 없죠.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불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 그들은 불어를 말하지 않고 엘리트들과의 단절로 인해 불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내내 플랑드르에선 고유한 언어의 부활을 주창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고유한 언어란 그 당시엔 단지 방언이었을 뿐인데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들은 이후에 네덜란드 궁정의 언어이자, 오랑주가의 언어인 네덜란드어와 결합되게 됩니다. 현재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불어가 보급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투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그러니까 1830년과 1918년 사이의 벨기에에선 제한된 사람들만이 투표를 하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란 자격증이 있거나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귀족층에 속하거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만이 불어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플랑드르 서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줄 법률을 결코 변경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19세기 말에 가서야 상황이 바뀝니다. 그 당시 유럽 각지에서 의무교육을 주창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카톨릭교회의 수중에 있던 사립학교는 적어도 12살까지의 의무교육을 책임지는데 충분치 못한 체계였습니다. 적어도 모든 시민들은 쓰거나 읽거나 계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초등교육기관의 의무였죠.

그런데 플랑드르에서 어떤 언어로 교육을 시켜야 할 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발론과 브뤼셀에서는 문제될 게 없죠. 거기선 불어로 가르칩니다. 불어가 의견을 표명할 때 쓰는 언어니까요. 그러나 플랑드르에 있어서 불어를 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불어로 가르쳐야 할까요? 평소에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할 때 쓰는 언어로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네덜란드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단절은 1차세계대전 후인 191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중들이 쏟은 군사적인 노력과 군사적인 희생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이나 교육수준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하나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벨기에의 정치풍토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란 서민 중에서 뿔히고 서민을 생각하며 조금씩 서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을 가결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는 것이죠. 플랑드르운동이 요구하는 첫째 가는 원칙 중 하나는 네덜란드어의 재인식입니다. 이것은 19세기 전체를 통해 여기 저기서 이루어졌고

사실 1918년 이래 벨기에의 우수한 자료집이나 교육기관에서 네덜란드어가 사용됩니다. 이 운동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돼서 그 당시에 불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강 Gand대학에 플랑드르어과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좀 나중 일이지만 브뤼셀대학에도 플랑드르어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어가 재인식되고 플랑드르에 몇몇 네덜란드어 교육기관이 나타나는 것이 첫번째 단계라면, 발론과 브뤼셀이 아닌 플랑드르에서의 불어의 폐지와 불어에 대항한 네덜란드어의 투쟁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플랑드르의 부르조아나 귀족은 계속 불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적 억압이나 부정을 불어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인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언어-정치적인 문제가 되죠. 전쟁이 끝나자 투표권은 일반화되었는데 여성들도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벨기에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벨기에에는 이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일국가가 아니고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헌법개정이 1970년에 있었고 1980년에 두번째 헌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언어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말하자면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독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거죠.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브뤼셀에서 첫번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브뤼셀은 근본적으로 불어를 사용하는 거대도시입니다. 주민의 85%가 불어를 사용하죠. 그러나 플랑드르어를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플랑드르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거의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단지 15%의 사람들만이 플랑드르어를 수도인 브뤼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브뤼셀은 아직 벨기에의 수도입니다). 브뤼셀 주민들을 관리하는 방식과는 다른 운용방식이 플랑드르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야합니다.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행해지고 있는데 벨기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변화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세부사항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관계자나 언어학자들과 얘기를 나누어 봐야 할 문제니까요. 그러나 이 방식의 실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이 현상은 단순히 언어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보면, 즉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결정권이 더 낮은 단계로 분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도시에선 소도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광장이나 수영장을 만들고 도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못했죠. 벨기에의 전통을 보면 처음엔 모든 것이 브뤼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으로 하달되었죠. 실제로 지방사람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영국사람들 또한 결정권을 잘 수행했죠. 유럽의 가장 중심이 되는 프랑스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결정권을 분산하여 상용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또한 지방에서 결정한 것이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천 만을 가진 벨기에와 같은 나라가 국제적인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러한 국제적인 정치수행을 유럽공동체에 맡긴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선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들은 상하의, 즉 중앙과 지방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지방사람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길 바라기 때문이고 위로는 지방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벨기에는 유럽공동체의 창설로 인해 여러가지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중심에 위치한 주의 소멸이 아니라 벨기에와 같은 연방국가의 중심이 되는 주가 재정적인 면에서 전체 세원의 2/3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가 군대와 외교를 장악하며 법을 만들며, 세무

와 사회보장에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주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공동체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죠. 지방과 공동체 사이의 차이는 공동체가 지적인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언어에 따라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지역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왈론 사람들과 플랑드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와 지역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이는 독일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브뤼셀에는 그 문제가 존재합니다. 브뤼셀은 불어공동체에 가깝지만 소수이나마 플랑드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개 언어 지역이 존재하는거죠. 물론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수이고 이개어를 하는 사람은 소수이기는 해도 말입니다. 이러한 언어사용에 따라 영역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컨대 문화유산의 교육과 관리는 공동체에 의해 정해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 도로나 병원 등의 것들은 지역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것은 영토의 문제이니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벨기에는 마지막 개혁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입법부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벨기에는 중앙집중적인 국가였고 양원제였습니다. 한국은 단원제이지만 벨기에는 양원제였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단원제였습니다. 혁명적인 면모들을 지니고 있는 직접 선거에 의한 의회를, 현명한 소수자의 또 하나의 의회로 보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의회인 상원을 구성하므로써, 흔히 '낭티 nanti'라고 불리는 토지소유자들, 귀족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고 직접 선출된 의회를 완화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은 지방상원들과의 코옵타시옹 cooptation³⁾ 방식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결국 보수 의회와 혁명적인 또 하나의 의회가 맞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보통선거의

3) 회원들 자신에 의한 신회원의 선출 방식.

도입은 이러한 새로운 의회의 창조를 방해했습니다. 상원은 보수의회로서의 중요성을 상당부분 잃게 되긴 했지만 입법의회로서의 중요성은 유지하게 되었죠. 즉 하원과 마찬가지로 자격으로 입법의 권한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원의원들은 벨기에의 전지역에서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한 것은 벨기에 전 지역에서 보통선거로 선출된 의회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원은 지역의회에 의해서 대다수의 상원의원들을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상원은 실패한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플랑드르인들은 플랑드르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왈론인들은 왈론 하원의원들을 선출한다는 것이고 이는 두 지역에서 선출된 플랑드르 지역의회와 왈론 지역의회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상원은 더 이상 입법적 권한을 지닐 수 없게 됩니다. 단지 헌법이 새로 잠정적으로 개헌되는 경우에만 상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한을 제외하면 상원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벨기에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즉 벨기에도 입법부를 구성하는 단원제가 된 것이죠. 행정부 역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공동체와 지역에 많은 권한을 이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행정부는 아직도 대단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 세무적인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세원을 보유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그것을 분배하는 역할을 행정부가 맡고 있는거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불어집단의 미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제 얘기가 특히 벨기에의 불어사용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의 플랑드르어지역과 불어지역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플랑드르어와 네덜란드어 사이의 힘의 관계가 벨기에 불어와 프랑스 불어 사이의 힘의 관계와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5천 5백만의 국민이 있고 벨기에의 불어사용권의 인구는 450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플랑드르인들이 네덜란드와 갖는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프랑스와 유지해 왔습니다. 벨

גיע가 네덜란드와 분리될 때 플랑드르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찬성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플랑드르인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네덜란드와 근본적으로 분리 되길 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칼빈 전통과 프로테스탄트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벨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벨기에는 항상 그 본질에 있어선 카톨릭국가였습니다.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인내와 반성 그리고 지극히 유별난 친화성을 갖게 했죠.

플랑드르인들과 네덜란드의 관계를 봅시다. 19세기에는 종교현상이 대중정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플랑드르인들은 문화적으로 매우 강한 동질성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네덜란드인이 아닌 플랑드르인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불어권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인 측면에서 벨기에 불어권지역의 대다수 위대한 예술가들은 프랑스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크 브렐 Jacques Brel은 벨기에에서 노래를 시작했지만 성공하자 파리로 갔습니다. 시므농 Simenon 같은 작가도 벨기에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신문기사를 썼지만 이후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죠. 폴롱 Folon 같은 화가도 벨기에에서 시작해서 파리로 떠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만 지극히 소수죠. 유혹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이죠. 디스크나 책들을 출판하려면 프랑스에서 해야합니다. 벨기에에서보다는 파리에서 훨씬 더 큰 시장이 보장되니까요. 벨기에의 프랑스문학은 확실히 지역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프랑스지역의 감수성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시므농이나 프랑수아즈 말레조리스 Françoise Maléjorisse 같은 작가도 또한 파리에 살고 있는데 벨기에와 프랑스 북부지방의 고유한 감수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수성은 근본적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퀘벡의 감수성 만큼 그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죠. 퀘벡의 감수성은 스위스의 감수성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루소는 스위스작가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스위스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루소는 프

랑스인이고 프랑스작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프농을 벨기에작가가 아니라 프랑스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언어로 쓰는 작가지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꼬르뷔지에 Corbusier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알죠? 그는 프랑스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발론의 문화적 정체성 identité이 정체성이 아니라 감수성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퀘벡이 문화적으로 정체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우리보다야 강하죠. 그러나 많은 퀘벡의 가수와 작가들이 프랑스에 대해 아주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명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순수히 물질적인 이유, 즉 시장 때문이기도 하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플랑드르 문화의 정체성 만큼 확고한 프랑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사명을 지닌 한 문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자각합니다. 벨기에의 불어권 지역의 학교수업을 들어 보면 문학, 감수성, 역사적인 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불어권 지역에선 어쨌든 벨기에 작가들을 다루진 않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선 가르치기도 하지만 프랑스 문화의 기반을 알기 위해서죠. 즉, 처음에는 롤랑의 노래, 그 다음엔 라신느, 꼬르네이유, 모든 낭만주의 작가들을 다루고 그 다음엔 프루스트, 현대문학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벨기에 문학과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영문학을 얘기할 때 셰익스피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셰익스피어가 영국인이라고 해서 거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벨기에 문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주가 되는 것은 불어, 파리사람들의 불어입니다. 불어가 벨기에나 퀘벡사람들에게 고유한 것은 아니죠. 불어와 영어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영어에 대한 주된 권한은 영국이 아니라 미국인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불어에 있어서 주된 권한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나 퀘벡이나 벨기에가 아니죠. 에스파니아어를 보자면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에스파냐가 주도권

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열등한 위치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파리볼어의 주변부 감수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오노 Giono나 파놀 Pagnol을 보면 그들은 지역적인 감수성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일반 프랑스적인 감수성을 풍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개성 있는 것이죠. 지오노는 모리악이 아닙니다. 또 모리악은 시르농이 아닙니다. 몇몇 여류 문학가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프랑수아즈 말레조리스와 그녀의 어머니이며 매우 벨기에적인 쉬잔 리라르 Suzanne Lilard가 그들입니다. 수자 리라르는 아주 위대한 감수성으로 『베아트리스 베끄』, 『레옹 모렝 신부』 등의 소설을 썼습니다. 이러한 벨기에의 감수성은 브르타뉴 문학, 지롱드 문학, 스위스 문학, 그외 지방 문학들처럼 주변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감수성은 그 자체로 정체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문화의 여러가지 면모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벨기에의 건설과정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일을 예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문화가 점점 상호침투하게 되죠. 관리하기에 지극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다른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일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레바논, 유고슬라비아, 아시아의 버마, 인도네시아 등... 함께 사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함께 살려면 정서적으로 서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규칙은 점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제도 속에 용해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차이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이 차이들을 공존의 이해관계 속에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벨기에가 복잡한 해결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복잡한데 단순한 해결을 볼 수는 없겠죠.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천 년 동안 우리는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유고슬라비아 국민들은 국가적인 틀과 정체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럽인들이고 이것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합니다. 벨기에의 경우 하나의 경계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경계가 그것인데 한쪽에선 불어를 말하고 한쪽에선 네덜란드어를 합니다. 각각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같은 영토 위에 살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최대한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성들이 너무 다른 경우로 아일랜드, 키프로스섬, 버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저는 유고슬라비아 위기가 시작될 때 전혀 찬성하지 않는 신문기자들과 토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위기의 기간이나 강도를 볼 때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같은 영토에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벨기에는 해결을 잘 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한 대대로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다른 음식, 다른 문학, 다른 생활방식이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거나 않았나 싶습니다.